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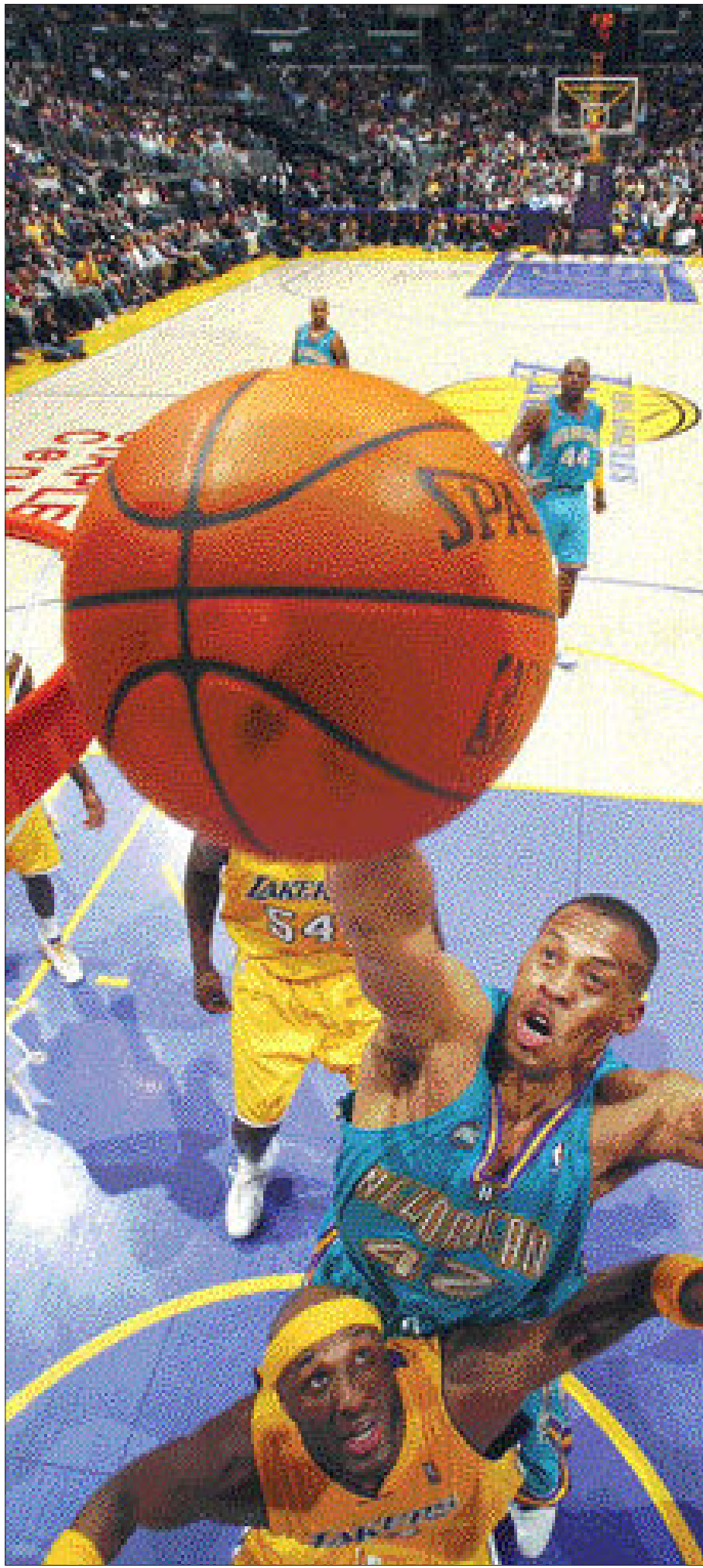
“그레이! 10승 이상 하그레이”

직구·싱커 등 제구력 좋아 시즌 초반 예상 밖 호투 KIA 서감독 ‘싱글병글’



“허허, 거참 잘 던진단 말이야. 공 끝이 좋잖아” KIA 서정환 감독은 요즘 ‘용병 투수’ 그레이 싱어(31·사진)만 보면 싱글병글 한다. 중심타선의 침묵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서 감독이지만 그레이가 버티고 있는 마운드만 생각하면 든든해 진다. 서 감독은 “올 시즌 그레이가 10승 이상은 무난히 해 줄 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사실 서 감독은 시즌 직전 그레이에 대해 물으면 ‘우리 반 기대 반’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다니엘 리오스(34)의 대체 용병으로 영입된 그레이는 데뷔 첫해 6승 6패 방어율 3.93의 별로 신통치 않은 성적을 냈다. 올 시즌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도 6.2이닝 동안 10안타를 두들겨 맞고 9실점하는 등 흔들리는 제구력으로 서 감독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투경을 열어보니 서 감독의 ‘우리 반’은 ‘기대 하나’로 바뀌었다. 그레이는 지난 12일 올 시즌 첫 선발 출전한 두산전에서 7.2이닝 동안 1실점 8탈삼진으로 호투하며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확고히 지켜냈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이날 팀 타선의 침묵으로 승수를 못 쟁긴 게 다소 아쉬웠지만 6일 뒤 롯데전에서 8이닝 동안 2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결국 첫 승을 따냈다. 이날 올 시즌 최고의 방망이 감각을 뽐내던 롯데 마이로우(21타수 10안타 홈런 4개·0.476)도 타석에 3번 나와 겨우 볼넷 하나로 걸어나갔을 뿐이다. 그레이는 올 시즌 들어 190cm, 90kg의 다부진 몸으로 뿌려 대는 최고 150km의 위력적인 직구가 안정감을 되찾았다. 지난 18일 롯데전에서 던진 47개의 직구 중 27개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그대로 빨려들어 갔고 롯데 타선은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공만 지켜봤다. 여기에 결정구로 던지는 커브, 체인지업, 싱커 등 모든 볼의 제구력도 돋보인다. 그레이는 “원하는 코스로 볼이 잘 켜트릴 때 자신감이 붙었다”며 “특히 한국 선수들은 빠른 볼에 강하기 때문에 싱커 등을 결정구로 던지고 있는데 볼이 낮게 제구되면서 아웃카운트를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그레이의 용병 성공기가 올 시즌 내내 이어질 것 같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코비 브라이언트 득점왕 경기당 평균 35.4 득점

미국프로농구(NBA) LA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가 처음으로 득점왕에 올랐다. 브라이언트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호니츠와 2005~2006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5점을 넣어 경기당 평균 35.4점으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득점 기계’ 앨런 아이버슨(33점)을 제쳤다. 1987~1988시즌 마이클 조던(35점) 이래 처음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5점이 넘는 득점왕에 올랐다. 브라이언트는 지난 1월23일 토론토 랩터스와 경기 때 무려 81점을 혼자 쓸어 담아 NBA 사상 한 경기 최다 득점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득점 3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차세대 황제’ 르브론 제임스(31.4). 어시스트는 피닉스 선스의 스티브 내쉬가 경기당 평균 10.4개로 2시즌 연속 왕좌를 거머쥐었고, 리바운드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케빈 가넷이 평균 12.7개로 3시즌 연속 타이틀을 차지했다. 야투 성공률은 마이애미 히트의 ‘공룡 센터’ 샐리 오닐이 60%를 기록, 3시즌 연속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3일부터 플레이오프 NBA

정규시즌 6개월 장점을 마친 미국프로농구(NBA)가 23일(한국시간)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 플레이오프 출전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서부 콘퍼런스 8위팀까지 주어졌다. 1회전에서는 각 콘퍼런스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7전4승제로 승부한다. 2회전(콘퍼런스 준결승)에서는 1-8위전 승자와 4-5위전 승자, 2-7위전 승자와 3-6위전 승자가 겨루게 된다. 2회전, 콘퍼런스 결승, 동·서부 우승팀이 맞붙는 챔피언결전전도 모두 7전4승제로 치러진다.

“농구공 정말 크네” 뉴올리언스의 센터 P.J 브라운이 20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2005~2006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슛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박찬호 첫승 신고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한국인 박찬호 투수로는 올 시즌 처음으로 귀중한 첫 승을 사냥한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로 밀렸던 팀의 대승을 이끈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호는 20일 승리투수가 된 뒤 엑스포츠와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간단한 허리 치료를 받고 오른쪽 어깨에 아이싱을 한 채 인터뷰에 응한 박찬호는 첫 승 소감 질문에 “늘 그렇지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경기를 잘 마쳤고 팀 승리에 도움을 줬기 기분 좋다. 국민과 미국 교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수들이 불리한 쿠어스필드에 대해서는 “(지난 15일)애틀랜타전 때보다 낫지

최희섭 시즌 2호 홈런 김병현 3%이닝 3실점 미프로야구 트리플 A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포터틀 레드삭스 소속인 최희섭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더럼볼스 애틀랜틱파크에서 열린 더럼 볼스(탬파베이 산하)와 경기에서 4-0으로 앞선 8회초 우중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왼쪽 허벅지 통증 때문에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마이너리그에서 재활중인 최희섭의 시즌 2호 홈런. 최희섭은 지난 15일 샛별 나이트를 상대로 첫 홈런을 때렸다.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2번째 재활 피칭에 나선 김병현은 이날 트리플 A 플로리다 스프링스 소속으로 포틀랜드(샌디에이고 산하)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3.2이닝 동안 3안타 4탈삼진 3실점으로 부진, 마이너리그 방어율이 4.91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flight deals, and promotional offers. Includes text like '하나투어 1등 여행사', '여행사 선호도 압도적 1위', and various travel itineraries with prices.